

주일의 말씀

“혼(魂), 창(創), 통(通)”

신영규 베드로 신부
논공가톨릭병원



世上(세상) 안에서 삶과 조직을 가장 탁월하게 운영하는 원리는 혼(魂), 창(創), 통(通)이라고 한다. 이지훈님이 쓴 경영지침서 제목이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魂, 創, 通의 삼중주가 아우러질 때 成功(성공)과 成就(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

魂은 삶의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다.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의식을 명확히 가지는 것이다. 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이기도하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것이다. 通은 문자 그대로 통하는 것이다. 바로 혼을 통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만남을 제쳐두고 굳이 우리가 함께 한술밥을 먹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면서 너무도 타성에 젖어 발전 없이 흘러가는 조직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보려고 찾아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組織(조직)으로 성장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 지도자는 한번 고려해 볼만한 제언이라 생각된다.

하느님의 백성인 教會(교회)의 組織(조직)도 이런

세상원리를 적용하여 운영해 본다면 훨씬 더 나은 활기차고 감동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魂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게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신자들은 교리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과 비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그들의 비전을 확고한 신념과 비전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創)는 신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신자 자신이 신념과 비전의 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와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通하는 것이다. 서로 함께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疏通(소통)의 부족으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유를 분명히 알고 충분히 그에 대한 관심사와 염려들을 모두와 나눈다면 그것은 소통의 무한한 힘으로 드러날 것이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다. ‘사랑의 새 계명’이 ‘구원의 길’이라면 성령 안에서 魂, 創, 通, 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6 참조

사도 15:1-2, 22-29 묵시 21:10-14, 22-23 요한 14:23-29

성모님께 기도를? 그 말이 맞나요?

교구 사목국

**“성모님!
당신 아들 예수님께
저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5월 성모성월입니다. 연둣빛 나뭇잎들과 꽃들로 수놓아져 가는 성모당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날들을 보는 것 같은 행복을 느낍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지혜13,5) 이렇게 아름다운 5월, 성모당에서는 지금 매일 성모의 밤 행사가 거행되고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성모님께 대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사랑은 참 각별하고도 지극하죠. 성모님의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귀감이고 표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가게 된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성모님께서 사셨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따르고 그분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결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바치는 기도에서 성모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사가 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친다 하여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 안에 성모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마태18, 19)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도 큰 기도가 묵주기도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 찬미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더욱 기쁘게 봉헌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특별히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성모송은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성모님께 드리는 부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성모님께 기도한다.”는 표현보다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 바친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모상 앞을 지날 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오상의 비오 신부님 아시죠? 신부님은 성모상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해 보세요.

“성모님! 당신 아들 예수님께 저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대주교

자랑쟁이 지키고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부활 제6주일

입당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화답송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파견성가

132 감사의 송가를

영성의 향기

:: 기도의 원천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기도는 온몸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솟아 나오는 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기도의 표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거처이며 자 신이나 타인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숨겨진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령만이 살피시고 감지하시는 자리이고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진리의 자리이며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과 하느님의 행위이며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2장에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바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순종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말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을 바치라는 요구까지 신뢰하지만 그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하느님의 강렬한 사랑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 어느 화가가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은 어느 교회에서나 느낄 수 있고 하느님께 미사를 드릴 때 느낄 수 있지요.”라고 신부님은 대답했습니다. 그 화가가 새색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새색시는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부요하게 하며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지친 병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그는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평화를 발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라!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그린단?’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자기 자녀들의 눈을 보니 그 눈 속에 믿음이 있고 자기 아내의 눈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 율려온 글입니다. -

★ 모임행사 ★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34주년 돌잔치

- 기념미사 및 축하사: 5.15(토) 19:00, 대안성당
- 문의: 255-1582(14:00~22:00)

제95차 선택

- 일시: 5.21(금)~23(일), 교구청 꾸르실료교육관
- 대상: 본당 내 19세이상의 미혼남녀
- 신청: 대구선택카페(http://cafe.daum.net/daeguchoice)
- 문의: 011-9352-3058, 마감: 5.14(금)까지

가톨릭순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5.12(수) 14:00, 장소: 가톨릭교육원

2010년 성령새신춘계대구대회

- 일시: 5.22(토) 10:00~18:00
-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 강사: 표중관신부, 김선호형제
- 문의: 551-9111

제10회 한국가톨릭젊은이성령축제

- 일시: 5.30(일) 9:00~17:00
- 장소: 성김대건 기념관
- 문의: 010-3808-1179 / 017-812-8150

2010 가톨릭 교육자 대회

- 주제: "교육의 길을 묻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 일시: 5. 16(일) 9:00 ~ 17:00
- 장소: 서강대학교
-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 문의: 02-460-7626

★ 성소모임 ★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5.16(일) 14:00
- 문의: 대구 청원소 010-5517-8833

가르멜 남자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셋째 주일 14:00
- 장소: 마산 진동 가르멜수도원
- 문의: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010-3169-7416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기도모임

- 일시: 5.15(매월 셋째 토) 19:00-21:00
-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성소모임

- 일시: 5. 30(일) 10:00~15:00, 음성수녀원
- 대상: 대학~35세미만, 문의:011-464-1265

★ 피정 ★

부산 분도명상의 집 영성피정

- 일시: 5.21(금)~23(일)
- 주제: 시편명상 성경책 피정비 9만원
- 지도: 정학근(모세) 원장신부
- 문의: 051-582-4573 / 010-6650-4574

포콜라레 피정 "하루마리아폴리"

- 일시: 5.16(일) 13:30~18:00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중강당
- 회비: 어른5천원, 초·중·고·유아3천원
- 문의: 651-2739 / 523-4822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식별피정)

- 일시: 5. 21(금) 17:00~23(일)14:00
- 장소: 대구포교매네티도수녀원, 대상:35세미만미혼여성
- 문의: 010-8519-3431 / 313-3431

★ 모집 교육 ★

가톨릭 복음 선교교육(사랑의선교)

-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 사랑을 전하는 관계 선교교육"

- 일정: 5.22(토) 10:00~23(일) 17:00
-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010-9558-7112
- 대상: 모든 신자(단체장포함)1인11만원

가톨릭 선종 장례봉사자 교육(청통수련원)

- 일시: 매월 셋째 토, 일(1박2일), 참가비: 5만원
- 천주교전통장례예절 / 선종봉사자임무(40명)
-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가톨릭요셉발견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4기

- 일시: 6.11(금)~13(일), 회비: 16만원
-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개인 또는 단체)
-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08

★ 안내 ★

가톨릭문화관 내 사무실 임대(1층 8평)

-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 대상: 0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 1차, 암검진(암검진은꼭예약해야함)
-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5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5.16(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외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오전 11시	주교좌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5월 10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오전 11시30분	2대리구청-범여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5월 10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가톨릭교단 월례미사	5월 11일(화) 오후 2시	성모당
			해외선교 후원회 월례미사	5월 13일(목) 오후 2시	성모당

대구큰사랑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한의원 진료 ▶중풍, 팔기압,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병원장 김 지 현 의사

한 신 주 택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별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냉동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마태오) 011-529-7501

범어 램브란트 치과

원장 김 대 호 (마 지 아)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Tel. 754-2804
www.ilovelamplant.com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결혼상담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미혼, 만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7~8
서울 - 02)579-3889
02)338-0788
http://mjms.co.kr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메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성모노인복지센터

요양등급 받으신 대상자에게
전문케어 서비스 제공
요양등급판정 받으실 분 친철상담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 달서구: 053)564-1577
남구: 475-1877 / 수성구: 784-2888

보석 전문점 미석 시계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 (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아가다 노인복지센터

아가다복지옹구사업소
요양보호사교육생모집(사지, 경산전지역 지명운행)
복지옹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고팔홍(안드레아) · 박성자(아가다)
☎ 시지점 795-4242, 경산점 815-2700